

건강을 지키는 현장

더 많은 주민이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할 계획

지역주민 건강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관리 공개강좌”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무료 건강관리 공개강좌를 시작한지도 벌써 4년이 넘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건강의식 함양에 많은 기여를 해온 이 공개강좌는, 그래서 해가 거듭할 수록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서울지부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전국 지부에서 많게는 월 2회, 작게는 월 1회 정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본부를 중심으로 지역순회 건강관리 공개강좌도 계획할 만큼 국민들과 가까이 있는 건협 공개강좌에 대해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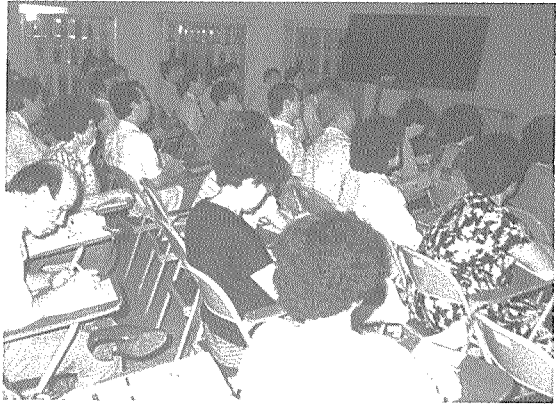
건강을 지키는 현장

◦ 좀더 현실적인 건강지식 전달

'88년, 건협 서울지부는,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실감나는 건강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끝에 이 무료 건강관리 공개강좌를 시작하게 되었다.

『건강관련 책자들이 고정된 사실을 전달하는데 비해, 공개강좌는 질병을 앓으면서 개개인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증례들을 전문의와 직접 대화하고, 예방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보건교육 방법입니다.』 서울지부 배정구 홍보관장의 이야기다.

해당질환의 전문의와
주민이 함께 자라래
질병에 대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공개강좌의
장점이다.



◦ 대기실에 VTR연결, TV로 공개강좌 볼 수 있도록

이 공개강좌의 초창기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강사선정,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내용의 선정, 시간의 안배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과 함께 처음 시작하는 일이어서 주민들의 호응도 별로 크지 않았던 것.

그래서 2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홍보관이 미처 반도 차지 않아 직원들이 자리를 메꾸기도 했던 웃지 못할 일도 초창기 두세 달동안에는 있었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그러나 몇달지나지 않아서, 홍보관의 자리로는 강좌를 들으러 온 주민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VTR을 연결해 상담실(건강 검사 접수 대기실)에서 TV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진 덕분일 것이다.

○ 현대인과 관련된 다양한 질병을 주제로 다뤘

건강관리 공개강좌는 그동안 간장질환, 위장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AIDS, 스트레스,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 등 현대인들에게 있어 심각한 건강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십가지의 주제들을 분야별 전문의를 초빙해 강의를 실시했다.

강좌의 구성은, 약 1시간 30분간 주제 강의를 하고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는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몇년동안 강좌를 실시한 결과, 참석자중 반 이상이 해당 질병을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고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경우였다. 그만큼 소위 성인병이 우리 가까이 존재하는 위협적 질병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 전국으로 공개강좌 확산

서울지부가 공개강좌를 매년 실시해 오는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지난 해부터는 월 2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건협 지부가 이 공개강좌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부산·경기지부의 경우는 신·증축된 건물의 홍보관을 이용해 매월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공개강좌는 지부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매월 4째주 목요일(서울지부는 둘째, 네째주 목요일)에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도지부를 문의하면 된다.

공개강좌는 지부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매월 4째주 목요일에 열린다.



○ 지역순회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그러나, 모든 일에 만족이 없듯이 공개강좌의 실시에도 새로운 바람이 생긴다. 즉, 아직까지 건협 지부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산간·오지 주민이나 소도시의 주민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관리협회는 빠른 시일 안에 지역순회 공개강좌를 실현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㉞